

面疱症에 대한 治驗 小考

법 희 변*

1. 面疱의 原因과 症狀

여드름은 모낭과 피지선에 여드름균(Corynebacterium acnes)이 감염되어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疾患으로, 주로 유전적 素因이 있는 사람에게서, 思春期로부터 性 Hormone 分泌 活盛期에 많이 일어난다.²⁾ 이것은 성인이 되면서 차츰 消失되는데 40세 또는 60세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여드름은 面疱, 面粉刺, 穀嘴瘡, 粉刺瘡이라고도 하는데, 貧血性, 惡液質性의 사람에게 多發하며, 顔面, 목, 상부가슴, 등, 어깨등에 걸쳐 발생한다.⁶⁾

韓方醫學에서는 顔面은 五臟과 六腑의 거울이라고 하였으며, 五臟과 六腑에 어떤 疾病이 發하면 顔面에 臟腑의 發顯部位에 따라서 變化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⁷⁾

原因으로는 肺經血熱과 脾胃濕熱로 大別되는데⁸⁾ 肺熱하여 皮膚에 鬱結이 되어 發生하거나, 或은 膏粱珍味와 辛辣한 飲食을 過期하여 脾胃에 濕熱이 생겨 陽明經을 따라 顔面에 上蒸한 가담으로 發生하기도 한다.⁶⁾

西醫學에서는 androgen에 의해 皮脂腺이 刺戟을 받아 多量の 皮脂를 分泌하는데 여기에 여드름균이 과대 증식되어 지방을 分解하여 脂肪酸이 축적되며, 이 脂肪酸과 세균에서 分泌되는 化學물질이 毛囊에 刺戟을 주어 炎症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2,8)} 때로는 이 염증이 進行되어 赤色丘疹이 나타나고, 손조작을 해서 2차 세균감염이 되어 膿포성 丘疹을 形成하기도 하며, 甚하면 膿腫이 形成되기도 한다.²⁾

臨床적으로 볼 때에 女性에 있어서는 月經不調, 便秘等の 症狀이 있고, 中年以上の 母性에 있어서는 子宮炎症, 月經不調, 產后 不調理, 神經性, 消化器 障礙 順으로 分類할 수 있으며, 男性에 있어서는 青年期는 特別한 病的인 것은 적고 中年層에서는 神經性과 飲酒와 過勞等에서 오는 肝經系統을 들 수 있다.⁷⁾

2. 治療

가급적 脂肪質 飲食과 濁한 食事は 禁하고 채식을 권하며, 女性의 경우 잘 맞지 않는 화장품을 피하도록 한다.

治療는 크게 나누어 體格 强壯하고 惡液質者와 虛弱 貧血者로 구분하여 治療하는데,³⁾ 內的인 疾病이 있는 사람은 該當 疾患에 對한 投藥을 우선으로 한다.

體格이 强壯하고 顔色은 붉고, 發疹도 또한 充血되는 傾向이 있으며, 隆起가 著明한 것은 清上防風湯 桂枝茯苓丸³⁾ 등을 使用하며, 冷症이며 貧血 傾向인 데는 當歸芍藥散,³⁾ 五積散,⁷⁾ 調經種玉湯⁷⁾ 등을 使用한다.

男子의 경우에는 對金飮子, 雙和湯, 小柴胡湯, 六味地黃湯 등을 使用한다.⁷⁾

3. 治驗例

① 홍○○ 女 28歲

직장에 다니고 있는 未婚女性으로, 보통 체격으로 보인다. 3個月 前부터 입주위에서 턱 밑까지에 보기 흉할 정도로 面疱가 發生하고 있다. 面疱는 약간 붉고 융기되어 있으며, 끝은 노랗게 化膿이 되어 있었다. 平素 消化나 大便 狀態는 良好하며, 腹診上 下腹은 약간 堅滿하

* 잠실 경희한의원 원장

고 脈은 細하였다. 生理는 대부분 규칙적이고, 生理痛도 別로 없다고 한다.

일단 風熱로 보고 清上防風湯으로 치료할까 하다가 面疱 자체가 그렇게 充實하지 않고, 充血도 甚하지 않으며, 惡液性 體質로도 보이지 않아 (加味連交散)으로 투여하기로 하였다. 丸劑로 1個月分을 服用하면서 外用藥으로 西施玉容散¹⁴²⁵⁾ 1日 1回 洗面時에 바르도록 지시하였다.

1個月后 다시 來院했을때는 입 주위는 약간의 傷痕만 있고, 消失되었으며 턱 밑에만 두어개 化膿이 되어 있는 정도로 好轉되었다. 다시 1個月分을 투여하고 完治되었다.

〈加味連交散〉; 連交, 川芎, 白芷, 黃芩 各 50g, 沙蔘, 荊芥, 桑白皮, 梔子, 貝母, 甘草 各 40g, 黃連 30g, 金銀花 60g, 防風, 薏苡仁 各 50g.

② 김○○ 女 31歲

보통 체격에 조금 약해 보이는 婦人으로 8個月前 봄부터 兩頰部位에 좀쌀만한게 뭐가 자주 나서 신경이 쓰인다고 來院하였다. 肉眼狀으로는 별로 대수롭지 않았지만, 미용에 꽤 신경을 쓰는 편이라 무척 거슬린다고 한다. 平素 手足冷하고 下腹冷感도 있으며 月經은 后退하는 傾向이다. 消化는 잘 될때도 있고, 안 될때도 있으며 脈은 細弱無力하다. 患者 자신은 복강경 手術을 한 후부터 發하였다고 한다.

冷症이며, 貧血者에 쓰는 當歸芍藥散을 쓸까 하다가 子宮機能을 좀 더 도와주는 調經種玉湯을 투여하기도 하고 外用으로는 玉容散을 1日 1回 도포하도록 지시하였다.

2個月后 消化不良으로 來院했을때 전번 그藥으로 신통하게 얼굴이 반들반들하게 깨끗해졌다고 좋아하였다.

〈調經種玉湯〉加連交, 薏苡仁 各 4g, 阿膠珠, 山棗仁, 白茯苓 各 3g, 遠志, 柴胡, 木香

各 2g.

③ 김○○ 男 54歲

첫 인상에도 惡液質者로 보이는 검고 통통한 體格으로 얼굴에 자주 뭐가 돋는다고 來院하였다. 顏面 여기저기에 상당히 充血된 瘡癩이 보인다.

平素 술을 좋아하여 자주 마시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食感不振하며, 易上氣한다고 한다. 消化는 良好하며, 腹診하니 胸脇苦滿이 著明하고 脈은 滑數하다.

肝熱이 甚하여 解毒作用을 잘못하는 까닭에 發生하는 風熱毒으로 보고, 〈小柴胡湯〉合〈清上防風湯〉하여 10日分을 투여하였다. 10日后에 아주 기분좋은 表情으로 진찰실로 들어오며, 前方 服用으로 疲勞도 훨씬 줄고, 부하 직원들이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놀란다고 하며 좋아하였다. 腹診上에도 胸脇苦滿은 $\frac{2}{3}$ 정도 消失되어 있었다. 다시 本方 5日分을 투여하였다.

며칠 後 다른 患者를 소개해 주면서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④ 유○○ 女 23歲

얼굴은 하얗고 날씬한 몸매의 女性으로 口唇 주위에만 여드름이 發生하여 보기에도 흉할 정도다. 面疱는 약간 붉고 융기되어 있으며, 끝은 노랗게 여기저기 化膿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고민이 보통이 아니다. 2年前부터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洋方治療를 해도 別無效果라 한다. 平素 手足冷하고, 추위도 잘 타며, 消化不良하고 神經이 예민하여 不眠症이 있다. 또한 生理痛이 甚하고 生理時 塊多하며, 大便은 便秘가 있다. 脈은 細弱하므로, 먼저 〈調經種玉湯〉加連交, 薏苡仁 各 4g, 厚朴, 桃仁, 蓬朮, 山棗仁炒, 白茯苓 各 3g 하여 10日分을 투여하고, 外用으로 玉容散을 바르도록 지시하였다.

10日后 來院했을때, 消化良好, 잠도 잘 자고, 大便도 편해졌으며, 手足濕해졌고, 化膿 상태도

많이 好轉되었다. 다시 20日分을 투여하고 상태가 좋아 閉藥했다.

8個月이 지난 后 本 患者가 다시 來院했다. 1個月前부터 다시 甚해져서 皮膚科에서 瘡 治療했으나 效果가 없고 더 甚해진것 같다고 한다. 現在 消化나 大便상태는 良好하며 脈은 細弱하다. 患者에게 大腸治療器로 宿便을 除去한 后 藥物 治療하기도 하고, 2日 間격으로 3日 腸治療를 먼저 하고 나서, <當歸芍藥散>合<連交散> 丸藥으로 1個月分을 투여하였다. 또한 外用으로는 玉容散을 바르도록 하였다.

이 藥이 效가 좋아 3個月을 계속 服用한 后 閉藥했다.

<當歸芍藥散> 合 <連交散>; 當歸, 白芍藥, 白茯苓, 白朮, 澤瀉各 30g, 連交, 川芎, 白芷各 40g, 黃連酒炒, 黃芩酒炒各 20g, 沙蔘, 荊芥, 桑白皮 梔子炒, 貝母, 甘草各 30g, 金銀花 50g, 防風, 薏苡仁各 40g, 密丸 녹두대 1回 4g 1日 3回 服用

參 考 文 獻

1. 金定濟: 診療要鑑,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74, pp307 ~ 308.

2. 金昌種: 病態生理學, 서울, 癸丑文化社, 1988, pp749 ~ 751.

3. 朴炳昆: 漢方臨床 40年, 서울, 大光文化社, 1979, pp460 ~ 461.

4. 李璟模: 漢方秘錄, 수원, 성진출판사, 1983, p353.

5. 許 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211.

6. 吳秀逸: 醫林(面疱에 使用된 外用藥에 關한 研究), 서울, 醫林社, 174:14, 1986.

7. 李秉澤: 醫林(美容治驗例), 서울, 醫林社. 160:38, 39, 1984.

8. 鄭東郁: 面疱에 關한 文獻的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中間發表論文, 1988, pp1 ~ 2.